

제사장 ‘레위인’과 사회적 약자(=miserae personae) ‘레위인’

이금재 (목원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레위인’에 관한 다양한 논쟁
 - 1. ‘레위인’의 기원과 제사장 레위인
 - 2.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세 그룹: 아론계, 사독계, 레위계
 - 3. 레위인과 레위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
- III. 종교 개혁과 사회적 약자(=miserae personae) ‘레위인’
 - 1. 요시아 종교 개혁
 - 2. 느헤미야 종교 개혁
- IV. 나가는 말: 사회적 약자 ‘레위인’과 사회적 약자 ‘목회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1.01>

• ABSTRACT •

Priestly ‘Levites’ and Social outcasts (=miserae personae) ‘Levites’

Assistant Prof., Lee, Keung Jae (Mokwon University)

In the Old Testament, the Levites are mentioned among the socially marginalized, alongside foreigners, orphans, and widows. Social and legal protections were established for these vulnerable groups. Particularly in Deuteronomy, following King Josiah’s religious reform (622 BCE), the ‘Levites living in your towns,’ who had been excluded from the priesthood, are recognized as socially vulnerable individuals in need of economic support. Later, during the Nehemiah reforms (5th century BCE), efforts were made to support the Levites economically through tithes and offerings. This historical context is similar to the situation of pastors today who face financial difficulties, and supporting them should be regarded not merely as an ethical responsibility but as a spiritual obligation.

Key words: Social Outcasts, Levites, Deuteronomy, Josiah’s Religious Reform, Nehemiah’s Religious Reform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언급되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 “miserae personae”로 분류되는 세 부류(=“Sozialtrias”)¹⁾는 ‘나그네/객’, ‘고아’ 그리고 ‘과부’²⁾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언급되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설명하는 ‘제왕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 법전³⁾ 속에서도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 신명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단순히 연민 또는 배려의 감정을 품는 것을 뛰어넘어 구체적이면서 사회적 그리고 율법적 보호 장치들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추수 후 이삭줍기 및 과일수확 금지(신 24:19-22), 희생 제물을 함께 나누기(신 16:1-8; 15:20), 절기 축제에 이들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기(신 12:11-18; 14:26-27; 16:11-14; 26:11 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되는 십일

-
- 1) 고대 근동 및 구약의 대표적인 3 부류 사회적 약자들을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언급한 학자는 Georg Braulik, “Die dekalogische Redaktion der deuteronomischen Gesetze. Ihre Abhängigkeit von Levitikus 19 am Beispiel von Deuteronomium 22,1-12; 24,10-22 und 25,13-16,” in ders., *Bundesdokument und Gesetz. Studien zum Deuteronomium*, HBS 4 (Freiburg: Herder, 1995), 18이다: “Es vereint die klassischen Marginalgruppen der altorientalischen Gesellschaft, nämlich **נָר יָחִים וְאֵלֶּמְנָה**, zu einer **Sozialtrias**, zieht sie aus dem Armenrecht weg und bringt sie in ein neu geschaffenes, breit ausgebautes Versorgungsrecht.” 그러나 구약에서는 때때로 ‘고아와 과부’(예를 들면, 사 1:17; 9:17; 10:2 등)만 또는 ‘나그네’(예를 들면, 출 23:9; 레 19:33 등)만 단독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
 - 2) 이들에 대한 최근 연구는 이한석, “구약 성서의 타자(他者)인 이방인과 고아, 과부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적 고찰: 신명 24,17-22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60 (2024), 490-501을 참고하라.
 - 3) 이들에 대한 왕의 의무나 법적 내용은 Frank Charles Fensham, “Widow, Orphan, and the Poor in Ancient near Eastern Legal and Wisdom Literature,” *JNES* 21 (1962), 129-139, Thomas Krapf, “Traditionsgeschichtliches zum Deuteronomischen Fremdling-Waise-Witwe-Gebot,” *VT* 34 (1984), 87-91와 Nora Molnar-Hidvegi, “Witwe und Waise (AT),” (erstellt: April 2010)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ft.de/wibilex/>을 참고하라.

조 헌물을 나누기(신 14:28-29; 26:12-13 등) 등을 꼽을 수 있다.⁴⁾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여성, 포로, 가난한 자, 노인, 장애인 그리고 중을 위한 구체적인 규범 및 사회적 장치 역시 마련되었음을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요인과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 아마도 친·반 아시리아 정책을 폈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벌어졌던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주전 734-733년), 북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주전 722년)과 유다의 요새 도시 라기스의 함락(주전 701년) 등 아시리아의 정치적 압박이라는 요인과 아시리아의 팽창 시기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 즉,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한 북 왕국 출신의 유민들은 본토를 떠나 유다 사회에 정착한 ‘나그네’⁷⁾가 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과부, 고아, 노인, 포로 그리고 장애인의 증가 그리고 농토의 파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으로

4) Rainer Albertz, Raine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1*, 강성열 역, 『이스라엘 종교사 1』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507-510.

5) 최무열, “신명기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선교적 적용에 관한 연구,” 『신교와 신학』 36(2015), 249-265은 신명기 속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6) Rainer Albertz, “Die Theologisierung des Rechts im Alten Israel,” in Rainer Albertz (Hrsg.), *Geschichte und Theologie: Studien zur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und zu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BZAW 326 (Berlin: de Gruyter, 2003) 192-193. 이외에도 한동규,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89-91은 이농현상과 이로 인한 도시화를 또 다른 요인으로 꼽았다.

7) 구약에서 말하는 ‘나그네(게르/גֵר)’는 이스라엘 본토인이지만, ‘정착지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본토인’이나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문화에 동화된 ‘이주민/이방인’을 뜻한다. 단순히 ‘이주민’이 이스라엘 내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자발적으로 동화되어 사회적, 경제적 무엇보다 종교적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였다. ‘나그네’에 관하여는 이금재, “구약 속 ‘이방인(גֵר)’과 ‘외국인(נָכְרִי)’에 대한 신학적 평가: 다문화·다인종 사회와 2세대 청소년에 전하는 한국 교회의 메시지,” 『신학과 현장』 33(2023), 219-244, 무엇보다 223-227을 참고할 수 있다.

강등된 평민들이 증가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 사회적 약자에 처음으로 신명기 26장 12절에서 '레위인'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약에서 언급된 '레위인'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신학적 고찰과 함께 언제부터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레위인이 경제적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레위인이 사회적 약자였는지 아니면 특정한 레위인이 사회적 약자였는지에 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II. '레위인'에 관한 다양한 논쟁

1. '레위인'의 기원과 제사장 레위인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 '레위(레비/לֵוִי)'(창 29:34)의 어원적 의미는 다양하지만, '단단히 매다' 또는 '연결하다'라는 뜻을 지닌 'לָוַי'에서 찾은 베르거(Klaus Berger)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⁸⁾ 그리고 '레위인' 범주에 '레위인(들)/레위 사람(하레비임/הַלְוִיִּים)', '레위 자손(베네 레비/בְּנֵי לֵוִי)' 또는 '레위 지파(메테 레비/מִטֵּה לֵוִי)'가 포함된다.

이러한 '레위인'의 삶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정보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과 구약 본문에 따라 다양하게 언급된다. 먼저, 레위의 후손은 나머

8) '레위인은 YHWH께 봉헌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YHWH와 연결된 존재'하는 성경의 진술(민 3:12,45; 18:6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Klaus Berger, *Das Buch der Jubiläen*, JSHRZ 2.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81), 478는 희년서 31장 16절에서 레위인을 'YHWH에 속한 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레위의 어원을 동사 לָוַי에서 찾았다. 비교 James C. VanderKam, "Jubilees Exegetical Creation of Levi the Priest," in ders., *From Revelation to Canon: Studies in the Hebrew Bible and Second Temple Literature* (Leiden: Brill, 2000), 546-547. 이외에도 몇몇 학자들은 구약 속 레위의 기원을 고대 근동 문헌에서 언급된 인명(人名)과 비교해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히타이트 문헌, 마리 문헌 그리고 이집트 문헌을 비교 언급한 정중호, "야훼 종교 제사장 레위인의 정체와 역할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18(1999), 196-197과 그곳에서 언급된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지 11명의 야곱의 아들/지파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땅의 지분을 약속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양하다.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레위는 야곱의 유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져 살 것이라는 야곱의 유언 때문에(창 49:5-7)⁹⁾, 제사장을 돕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민 18:21-23), YHWH가 언약궤를 메는 것과 같은 YHWH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신 10:8-9) 등 다양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언급하게 될 레위인의 역할 및 직무에 관한 내용 역시 통일되지 않는다. 신명기 33장 8-11절에서 언급된 12 지파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지만,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소위 ‘제사장 문서’¹⁰⁾나 ‘역대기 역사서’¹¹⁾에서 레위인은 ‘비제사장그룹’으로 그들의 직무는 제의를 봉헌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구약의 진술을 통해서는 ‘레위인’의 기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레위’이다. 그러나 신학적 관점에서 ‘레위인’은 ‘레위’의 후손으로 혈연관계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사장 또는 성전 관리인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종교적 그룹을 지칭하는지와 같은 레위인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예를 들면, 로이흐터(Mark Leuchter)¹²⁾는 ‘레위인’의 기

9)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의 레위인은 누구였는가?,” 『구약논단』 89(2023), 109-110는 이 저주 유언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비교: Jaeyoung Jeon, “Levites,”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Its Reception (EBR)*, Vol 16 (Berlin: de Gruyter, 2018), 336-337.

10) 예를 들면,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민 3:6-13), 성막(민 3:14-51)과 성막 기물을 보살피는 레위인(민 4:1-20; 비교 민 18:1-7, 21 등).

11) 예를 들면, 성전 문지기(대상 9:17-27),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자(대상 9:28-32), 성전 성가대원(대상 9:33) 등.

12) Mark Leuchter, *The Levites and the Boundaries of Israelite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84-85.

원을 야곱의 아들 ‘레위’가 아닌 ‘사무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왕국 시대 이전 이스라엘 내 지역 성소에서 사역했던 개개인들은 그 지역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 씨족 “the dominant priestly clan”과 함께 활동하거나 주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무엘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로 실로 성소에서 지배적인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엘리 가문이 몰락하자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주장에 의하면 ‘레위인’은 혈연관계와 무관한 제사장 직무 수행하는 종교적 그룹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렘(Merlin D. Rehm) 역시 레위의 후손인 게르손, 고핫 그리고 므라리(출 6:16-20) 역시 혈연관계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혈연관계가 아닌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씨족이 모여 “레위”라는 지파를 형성했다고 주장하였다.¹³⁾ 여기에 레위인을 제의와 무관한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창 34:25-26; 49:5-7; 출 32: 26-28 등),¹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사람들 또는 사법적 문제를 중재하는 사람들 뜻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¹⁵⁾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를 일부 레위인이 (동시에)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의와 연관된 레위인의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언급한 많은 구약 진술들을 고려한다면 제의적 직무를 배제한 레위인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논쟁 이외에 제의를 수행하는 직무와 연관된 ‘레위인’이 언제 하나의 지파 또는 그룹으로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논의 역시

13) Merlin D. Rehm, Art. “Levites and Priests,” *ABD* IV (New York: Doubleday, 1992), 300.

14) 구약 본문에서 언급된 레위인의 군사적 행동을 정중호, “야훼 종교 제사장 레위인의 정체와 역할에 관한 연구,” 199-201는 가족과 YHWH 종교 공동체의 정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았다.

15) 이와 같은 두 가지 주장에 관하여는 Antje Labahn, “Levi / Leviten,” (erstellt: August 2014),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에서 언급된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하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언급한다면, 첫째,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제의를 수행했던 레위인을 통칭해서 ‘레위 지파’라는 독립지파로 불렀다는 의견¹⁶⁾과 둘째, 포로기 및 포로기 이후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의 및 제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성가대나 성전 문지기와 같은 성전 제의와 무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통틀어 레위지파라는 큰 틀 안에 포함시켰다는 의견이 있다.¹⁷⁾

구약에서 제의 수행과 연관되어 첫 번째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출 4:14; 6:15-25)과 그의 네 명의 아들(나답, 아비후, 엘르아살¹⁸⁾,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출 28:1, 41; 29:4-36; 30:30 등). 모세 역시 레위 지파 출신으로(출 2:1-10)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제사장 모습으로 언급되지만(출 24:4, 8; 비교 시 99:6), 제사장 직분은 모세보다 아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이외에도 아론과 함께 대표적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인물인 사독 역시 비이스라엘 출신임에도 후기에 기록된 구약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 출신임을 말하고 있다(대상 6:1-8).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이처럼 구약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대표적인 제사장 그룹은 ‘레위계’, ‘아론계’ 그리고 ‘사독계’로 모두 ‘레위인’과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¹⁹⁾

-
- 16) Nadav Na'aman, "Sojourners and Levites in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BCE," *ZAR* 14 (2008), 266-272은 구체적으로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 언급된 레위인을 위한 성읍과 민수기 26장 58절에 언급된 레위 가족의 이름이 기록된 토기가 발견된 지역을 비교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의 기원을 헤브론 산 남쪽과 유다 산악 지대인 ‘세펠라’와 같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거주했던 레위 가문 중 하위 지파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였다(272). 정중호, “야훼 종교 제사장 레위인의 정체와 역할에 관한 연구,” 198 역시 레위인의 이스라엘 남부 지역 기원에 관하여 네 가지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 17) 레위 지파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의 레위인은 누구였는가?,” 128-135에서 언급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참조하라.
- 18) 시내 광야에서 YHWH께 금지된 불을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하여, 아론 사후 엘르아살이 두 번째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비교 민 3:4).

그렇다면 ‘오직 레위인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²⁰⁾ 예를 들면, 사사기 17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된 사람은 레위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배경으로 한 몇몇 본문들은 레위인 이외에도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 사무엘(삼상 1:1-20; 10:8), 기랴트여아림 출신 엘리아살(삼상 7:1),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의 두 아들(삼하 8:18) 그리고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은 벰엘과 단의 제사장(왕상 12:31; 13:33) 모두 비레위인 제사장이었다.²¹⁾

이와 같은 레위인과 복잡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많은 학자들은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이 1878년에 출간한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에서 찾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레위인은 특정 부족이 아니라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로 제의를 봉헌하는 업무가 아닌 종교 의식과 관련된 보조 역할을 수행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 장소로 규정하는 요시아의 예루살렘 중앙 성소화 종교개혁과 함께 비로소 ‘제사장-레위인 제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²⁾ 군네벡(Antonius H. J.

19) 이러한 사실은 ‘레위 자손-아론 자손-사독 자손’을 제사장직과 연관시킨 역대상 6장 1-10절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 관하여는 이미 Kurt Möhlenbrink, “Die levitischen Überlieferungen des Alten Testaments,” *ZAW* 52 (1934), 223-227이 언급하였다.

20) Aelred Cody, *A History of Old Testament Priesthood*, AnBib 35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9), 136는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1) Albertz, 『이스라엘 종교사 I』, 503-504는 사사 및 왕정 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다른 가문의 제사장 가문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사 시대에 단에서는 레위인이, 실로에는 엘리 후손이, 왕정시대에 벰엘에서는 아론 후손이, 예루살렘에서는 사독 후손이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는 일반 백성이(왕상 12:31)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다양한 가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2) Julius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Georg Reimer, 1899), 142-145. 그는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 제사장직을 독점한 아론의 자손과

Gunneweg) 역시 ‘레위인과 제사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의 역할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³⁾

2.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세 그룹: 아론계, 사독계, 레위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제사장 그룹을 ‘레위계’, ‘아론계’ 그리고 ‘사독계’로 나눌 수 있다.²⁴⁾ 먼저, ‘아론의 자손’ 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으로 불리는 ‘아론계’ 제사장이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중 소위 제사장 문서에 속한 본문(예를 들면, 출 29:1-25; 레 1:5-11; 2:2; 3:5.8.13; 민 27:12-23 등)에서 언급된 아론계 제사장은 제의를 담당하며, ‘레위인’은 이들의 조력자로 언급된다(민 3:5-10).²⁵⁾ 역사 비평적 관점에서 이러한 제사장 문서의 저작 시기를 포로기 이후임을 전제한다면, 포로기 이후에 아론계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지위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그룹 사이에 분명한 직분의 차이가

성전에서 경비, 성가대 또는 제사장 보좌와 같이 그들의 역할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부터 레위 지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제사장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스라엘 왕국 시대 이전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언급된 ‘제사장과 연관된 ‘레위인’에 대한 정교한 설명은 이스라엘 왕국 등장 이후 상당히 후대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118-149).

23) Antonius H. J. Gunneweg, *Leviten und Priester. Hauptlinien der Traditionsbildung und Geschichte des israelitisch-jüdischen Kultpersonals*, FRLANT 8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134-138. ‘레위인은 지파명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라고 주장한 Rehm, Art. “Levites and Priests,” 3297-310의 연구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에서 레위 자손과 제사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24) 이들 제사장 그룹에 대한 연구는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신학사상』 160(1999), 14-21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25) 흥미로운 사실은 ‘아론계 제사장’은 신명기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국 시대에 이들은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두 번째 제사장 그룹인 ‘사독계 제사장’과의 경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그룹인 ‘사독계 제사장’²⁶⁾은 신명기 역사서²⁷⁾, 역대기 역사서(대상 6:1-15)²⁸⁾ 그리고 에스겔(40-48장)²⁹⁾에서만 언급된다. 이들은 다윗이 아론계 제사장 아비아달³⁰⁾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독³¹⁾의 후손으로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왕위를 둘러싼 정권쟁탈전에서 왕국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직을 차지하였다. 즉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된 이후(왕상 2:26-27) 이후 아론계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의에서 밀려났으며,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 및 사독계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국의 제사장 지위를 유지

-
- 26) ‘사독 계열’ 제사장의 역사성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사독은 다윗이 등용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에서만 이스라엘 초기 역사와 무관했던 사독을 아론의 혈통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Benedikt Eckhardt, *Ethnos und Herrschaft. Politische Figurationen jüdischer Identität von Antiochos III. bis Herodes I.*, SJ 72 (Berlin: de Gruyter, 2013), 357-368와 Nathan MacDonald, *Priestly Rule. Polemic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Ezekiel 44*, BZAW 476 (Berlin: de Gruyter, 2015), 146-148은 왕국 시대에 사독계 제사장의 존재에 관하여 회의적이었다.
- 27) 신명기 역사서 속에서 왕국 시대에 사독 이외에 사독계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왕정 시대에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주도했는지에 관하여는 의심할 수 있지만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 역사서와 에스겔에서 사독계 제사장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들의 역사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28) 대제사장의 가계를 언급한 이 본문에서 레위·아론·엘르아셀·비느하스·사독을 하나의 가문으로 묶고 있다.
- 29) 에스겔에서 사독계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언급된다.
- 30) 그러나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18은 아비아달을 모세 계열 제사장으로 정의한다.
- 31) ‘사독’ 제사장의 역사성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사독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여부스 족속 출신이라는 Harold Henry Rowley, “Zadok and Nehushtan,” *JBL* 58 (1939), 118-12의 주장은 여전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

했던 사독계 제사장은 유다 멸망 및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후 페르시아 시대 때 귀환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 제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아마도 그 자리를 아론계 제사장이 다시 차지했다면,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이후 역대상 6장 1-15절 진술처럼 사독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묘사되며 최종적으로는 ‘레위계 제사장’ 전통과 병합되었다.³²⁾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중심 대상이 되는 ‘레위계’ 제사장 그룹이다.³³⁾ 이들은 신명기에서 ‘레위인’ 또는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 언급된다.³⁴⁾ 그렇다면 구약에서 첫 번째 레위계 제사장은 누구일까? 사사기 17장에서 미가라는 한 개인 집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한 ‘한 레위인’이 등장한다. 그는 ‘레위인’이기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12-13절의 마소라 텍스트를 직역해서 읽는다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 이 레위인이 단 지파의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처럼, 주전 11세기경 사사 시대부터 왕국 시대까지 레위인이 지속적으로 지역 성소에서 이스라엘 YHWH 종교의 제의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³⁵⁾ 그리고

32) 이에 관하여는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19-20에서 언급된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

33) George Ernest Wright, “The Levites in Deuteronomy,” *VT* 4 (1954), 326는 신명기에서 언급된 ‘레위인’은 ‘제사장’과 동의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Indeed, in Deut. the terms Levites and priests were **synonymous**.”

34) Na’aman, “Sojourners and Levites in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BCE,” 264. 이미 Gunneweg, *Leviten und Priester*, 77은 신명기에서는 ‘제사장의 레위인화’, 즉 ‘제사장은 오로지 레위인이다’ 이러한 과정은 요시아 시대에 진행되었으며, 그 증거가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표현의 사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Timo Veijola,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Kapitel 1,1-16,17*, ATD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239-241는 후기 신명기역사가의 작업 즉, 포로기 이후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5) 정중호, “아훼 종교 제사장 레위인의 정체와 역할에 관한 연구,” 201;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16. 그러나 Frank Moore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요시아 종교 개혁과 제2 예루살렘 성전 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직분을 놓고 ‘레위계 제사장’ 그룹은 다른 두 제사장 그룹과 경쟁했을 가능성이 높다.

3. 레위인과 레위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

‘레위인’과 ‘레위계 제사장’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모든 레위인이 제의를 봉헌하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에서 ‘레위인’의 역할 및 직무는 제사장 직분 이외에 다양했다는 사실을 구약 본문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명기 역사서에서 (삼상 6:15; 삼하 15:24; 왕상 8:4)³⁶⁾ 언급된 ‘레위인’의 임무는 제의와 무관한 언약케를 운반하는 임무였다. 무엇보다 열왕기상 8장 4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분되어 언급된다. 제사장 문서에 속한 민수기 본문에서 레위인은 제의 봉헌과 무관하게 성막 및 성막 기물을 보살피는 임무³⁷⁾와 같은 제사장을 돕는 성직자로 묘사된다(민 3:6-13; 4:1-20;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09-215와 Rehm, Art. “Levites and Priests,” 306-307은 ‘사독계’ 제사장의 등장과 함께 레위계 제사장은 예루살렘 제의에서 배제되고 지역 성소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 36) 아마도 ‘레위인’이 언급된 3 본문 모두 후대에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하여는 Hans Joachim Stoebe의 두 권의 사무엘 주석서, *Das erste Buch Samuelis*, KAT VIII/1 (Gütersloh: Gerd Mohn, 1973), 148과 *Das zweite Buch Samuelis*, KAT VIII/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364-365, 370와 Hans Wilhelm Hertzberg, *Die Samuelbücher übersetzt und erklärt*, ATD 1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⁵), 85-86을 참고하라.
- 37) John R. Spencer, Art. “Levi(person),” *ABD* IV (New York: Doubleday, 1992), 294는 레위인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뛰어난 전쟁 능력을 보유했기에(예를 들면 창 34장; 비교 출 32: 25-29), 성막과 언약케를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8:1-7.21 등).

역대기서에서도 레위인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제사장을 도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것(대상 23:32)과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것(대상 9:28-32)이었다. 이외에도 성전 문지기(대상 9:17-27)와 성가대(대상 9:33)³⁸⁾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대하 17:7-8)과 같은 종교적 임무 이외에도 왕궁 서기관과 재판관(대상 23:4; 24:6; 26:29)과 같이 왕실의 통치권 강화를 위한 관료의 역할³⁹⁾ 역시 레위인의 직무에 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그리고 같은 역대기 역사서에 속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레위인의 역할은 성전 보수와 관리 그리고 성전 문지기나 성가대와 같은 직접적으로 제의를 집행하는 제사장직이 아닌 다른 보조 역할(스 8:15-20; 느 11:15-18; 12:24-25, 44-47 등)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⁴¹⁾ 등에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²⁾ 이러한 레위인의 역할은 왕궁 시대보다는 페르시아 통치 시기인 제2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질적인 레위인의 직무일 가능성이 높

38) 장중호, “야훼 종교 제사장 레위인의 정체와 역할에 관한 연구,” 207는 “희생제사 의식이 중심을 이루는 시대에서 말씀 선포와 기도 및 찬양이 중심을 이루는 예배로 이행되는 전환점에 레위인은 개척자적인 공헌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성가대의 임무를 높게 평가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찬양을 제사보다 높이 평가한 시편 본문(시 28:7; 69:30-31; 137:4)을 근거로 레위인의 성가대원 역할은 결코 제사장 역할과 비교해서도 결코 열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39) 그러나 왕국 시대 레위인이 이러한 관료적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에 관하여는 Jeon, “Levites,” 342-346을 참고하라.

40) 무엇보다 역대기서의 레위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배희숙, “역대기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능 및 그 의미,” 『장신논단』 45/4(2013), 70-83을 참고할 수 있다.

41) 느헤미야 8장 5-9절에서도 율법교사로서의 레위인의 역할이 언급된다. 이를 통해 장중호, “야훼 종교 제사장 레위인의 정체와 역할에 관한 연구,” 205-206는 페르시아 시대에 제의 중심의 YHWH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새로운 YHWH 종교로 발전하는 데 레위인이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42) 이와 달리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26(2009), 126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레위’라는 단어가 언급된 본문을 분석한 후 마지막 결론으로 그 어느 본문에서도 레위인의 지위가 제사장들에게 종속되지도 신분상 그 어떠한 어떤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다.⁴³⁾

이와 같이 포로기 이후 레위인은 제의를 봉헌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유다 백성과 ‘레위인’의 우상 숭배 및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동참한 내용을 언급한 에스겔 44장 10-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레위인의 행위는 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무가 박탈되고 제의 예물을 준비하는 보조자 역할만을 수행하는 원인으로 평가받는다.⁴⁴⁾ 이어지는 15절에서 사독계 제사장들이 ‘레위인’의 제의 업무를 대신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본문에서 언급된 ‘레위인’은 일반인이 아닌 ‘레위계’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⁴⁵⁾

이러한 레위인의 제사장직 박탈은 종교적 이유 이외에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이유와도 관계가 있다.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인의 수는 74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에 반해 (사독계) 제사장의 수는 4,289명으로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스 2:36-40; 느 7:39-43).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돌아가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을 가능성(비교 대상 24:7-18)과 기존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레위인에 대한 제사장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비교 느 13장)이 높다.

43) Jeon, “Levites,” 342-343.

44) Jaeyoung Jeon, “The Levites and Idolatry: A Scribal Debate in Ezekiel 44 and Chronicles,” in Jaeyoung Jeon and Louis C. Jonker (eds.), *Chronicles and the Priestly Literature of the Hebrew Bible*, BZAW 528 (Berlin: de Gruyter, 2021), 369은 북 왕국과 남 왕국에서 널리 퍼져있던 우상 숭배와 레위인이 연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에스겔 44장에 언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동구,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구약논단』 21(2006), 13-14, 29-31 역시 본문에서 언급된 우상 숭배한 레위인은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 언급된 지역 성소에서 우상 숭배한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였다.

45) 이와 달리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124은 요시아 종교 개혁 시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지역 성소 제사장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 레위인의 모습은 다르다. 이미 사사기에 서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한 레위인을 세웠고(17장), 이후 그 레위인을 단 지파는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다(18장). 이는 사사 시대부터 지역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레위인에 대한 한 예일 것이다. 그리고 왕국 시대 무엇보다 주전 622년 요시아 종교 개혁(왕하 23장)이라는 ‘삶의 자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신명기 본문 속에서 언급된 레위인의 역할은 포로기 이후 ‘레위인’의 역할과는 분명 다르다.⁴⁶⁾

III. 종교 개혁과 사회적 약자(=miserae personae) ‘레위인’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삼상 2:35-36)”

위 본문은 실로 성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인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내용이 주전 11세기 경 실로 성소 파괴의 역사적 사실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과 연관되었는지,⁴⁷⁾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제사장 사독 및 사독 가문 제사장

46) 그러나 신명기 역사서에 속한 신명기 본문 속 레위인의 역할은 위에서 언급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본문처럼 언약궤를 메거나,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신 10:8; 31:9,25),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는 것(신 21:5; 비고 17:9), 율법을 낭독(신 17:18; 31:9)하는 등 제의와 무관한 직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Jeon, “Levites,” 339-340을 참조할 수 있다.

47) 실로 성소 파괴 및 엘리 제사장 가문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Detlef Jericke, “Silo (Ort),”

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지역 성소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엘리 가문의 몰락에 관한 신명기 역사가들의 평가⁴⁸⁾인지, 아니면 요시아 시대 지방 성소 제사장의 처참한 모습(왕하 23:9)⁴⁹⁾을 전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한 지역 성소의 파괴가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약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한 하나의 예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신명기 본문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언급된 ‘레위인’은 ‘제사장’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에서 총 7번(신 17:9,18; 18:1; 21:5; 24:8; 27:9; 31:9)⁵⁰⁾ 언급된 ‘레위 사람 제사장’과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신 12:12,18; 14:27,29; 16:11,14; 26:11,12.)을 들 수 있다.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어디에서 그 직분을 수행했는지에 관하여는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주장이다.⁵¹⁾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사독계 제사장들이 사역했다면,⁵²⁾ 이들은 지역 성소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

(erstellt: September 2019)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을 참고하라.

48) Ralph W. Klein, *I Samuel*, WBC 10, 김경열 역, 『사무엘상』 (서울: 솔로몬, 2004), 76-77.

49) P. Kyle McCarter,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 Commentary* (Garden City: Doubleday, 1980), 91; 강사문, 『사무엘상』,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8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65.

50) 여호수아(수 3:3; 8:33), 예레미야(렘 33:18,21) 그리고 에스겔(겔 43:19; 44:15)에서도 언급된다.

51) 이러한 주장은 이미 Gunneweg, *Leviten und Priester*, 134-136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Na'aman, "Sojourners and Levites in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BCE," 264,272와 Albertz, 『이스라엘 종교사 I』, 502의 주장을 참조하라.

52) Robert Kugler, Art. "Priests and Levites," *NIDB* 4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604-605는 ‘레위 사람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독계 제사장이

나 이들의 지위는 예루살렘 중앙 성소화 종교 개혁을 수행한 요시야 시대에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왕하 23:8-9). 즉, 지역 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레위 사람 제사장' 중 일부가 요시야 종교 개혁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⁵³⁾ 이러한 이유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⁵⁴⁾ 이들은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적 약자인 '레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중⁵⁵⁾에 거하는 레위인'이다. 군네백은 이들은 제사장 직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⁵⁶⁾ 이들 역시 지역 성소 제사장을 의미한다.⁵⁷⁾ 그리고 오경 중 이스라엘 사회 중심부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신명기에서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이 없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와 함께 언급되는 특별한 존재였다(신 14:29; 16:11,14; 26:11,12⁵⁸⁾).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⁵⁹⁾이라는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은 이스

라고 주장하였다.

53) Heinz-Dieter Neef, Art. "Levi," Otto Betz, Beate Ego und Werner Grimm (hrsg.), *Calwer Bibellexikon*, Bd. 2 (Stuttgart: Calwer Verlag, 2003), 826.

54) John Adney Emerton, "Priests and Levites in Deuteronomy: An Examination of Dr. G. E. Wright's Theory," *VT* 12 (1962), 133-136.

55) 여기에서 언급된 '성'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신명기(신 12:14; 14:25)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하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레위인 제사장', 즉 예루살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56) Gunneweg, *Leviten und Priester*, 27-28.

57) 신명기 역사가들은 이들을 우상 숭배한 '산당의 제사장들'(왕하 23:9)로 평가한다. 비교 Duane L. Chistensen, *Deuteronomy 1:1-21:9*, WBC 6A, 정일오 역, 『신명기 1:1-21:9』 (서울: 솔로몬, 2003), 517-518; Leslie C. Allen, Ezekiel 20-48, WBC 29, 정일오 역, 『에스겔 20-48』 (서울: 솔로몬, 2008), 483.

58) 신명기 26장 12-13절에서는 단순히 '레위인'만 언급되었지만, 12절에서 분명히 '당신들이 사는 성'에 사는 레위인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엘 성안에 거주하는 나그네처럼 성안에 거주하는 여타의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마도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⁶⁰⁾

1. 요시아 종교 개혁

그렇다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어떠한 이유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시리아의 지속적인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압박이다. 주전 722년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이전부터 대부분의 영토를 정복했으며, 이어지는 피정복민에 대한 잔인한 종교 정책으로 지역 성소는 파괴되었다. 남 유다 역시 주전 701년 산헤립에 의해서 요새 도시 '라기스'가 함락된 후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유다 대부분 지역이 정복되었으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 성소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 성소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약자가 된 제사장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⁶¹⁾이다.

59) '성이 이스라엘 전역의 성을 의미하기보다는, 레위인에게 제공되는 주변 목초지를 포함한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 성읍(민 35:1-8; 수 21:1-42)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뜻한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이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지만, YHWH가 직접 돌보시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에게 목초지를 제공했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 이외에 생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음을 반증할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레위인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0) 비교: 한동구, "포르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25-26; Jeon, "Levites," 339.

61) Leuchter, *The Levites and the Boundaries of Israelite Identity*, 180는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주전 722년 이스라엘 멸망 이후 유다로 피신하여 정착한 이스라엘 출신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였다. "This motif can be attributed in some way to the difficulties Levites may have encountered upon settling in Judah after the fall of the northern kingdom, since disadvantaged classes are situated at 'the gates' in

그리고 주전 622년 요시야가 추진한 예루살렘 중앙 성소화 종교 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⁶²⁾ 분명 그는 일시적인 아시리아의 정치적 공백기를 활용하여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려고 시도했다. 분명 요시야 개혁은 유다 내 아시리아 종교와 이방 제의 철폐(왕하 23:4, 11)를 통한 YHWH 종교의 순수성 회복과 파괴된 지역 성소를 재건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YHWH 종교 체계를 완성하는 것⁶³⁾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요시야는 종교 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도했다.⁶⁴⁾ 이는 율법책이 발견되기 이전(왕하 22:8)에 이미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왕궁 제사장이 아닌 왕궁의 행정적 관료였던 서기관 사반이 처음부터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왕하 22:3). 이 과정에 사회적 약자(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사회적 개혁’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구약에서 소위 ‘언약법전(출 20:22-23:33)’으로 불리는 본문 속에서 처음 언급된 후(출 22:21-24),⁶⁵⁾ 나머지 오경 중 오직 신명기(신 10:18; 14:29;

Deuteronomy.”

62) Na'aman, "Sojourners and Levites in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BCE," 274-278은 요시야의 예루살렘 중앙 성소화 작업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역 성소가 파괴되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Peter Altmann, "What Do the 'Levites in Your Gates' Have to Do with the 'Levitical Priests'? An Attempt at European-North American Dialogue on the Levites in the Deuteronomical Law Corpus," in Mark A. Leuchter and Jeremy M. Hutton (eds.), *Levites and Priest in Biblical History and Tradition*, SBL 9 (Atlanta: SBL, 2011), 147.153-154을 참고할 수 있다.

63) 이동규, "구약성서와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그 현대적 교훈," 『구약논단』 66(2017), 301.

64) 요시야 종교 개혁의 배경과 중심 과제에 관하여는 Michael Pietsch, "Josia," (erstellt: Juni 2017)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을 참고할 수 있다.

65) '언약법전'은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구약 내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원)신명기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Wolfgang Oswald, "Bundesbuch," (erstellt: Dezember 2005)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에서 언급된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하라.

16:11-14x2; 21:17-21x4; 26:12-13x2; 27:19)에서만⁶⁶⁾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와 요시아의 개혁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으며,⁶⁷⁾ 본 연구에서도 제사장과 관련된 요시아 종교 개혁(왕하 23:8-9)의 내용을 신명기 본문⁶⁸⁾을 비교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신명기에서 레위인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이 없기 때문에(예를 들면, 신 14:27, 29), YHWH께 봉헌된 제물과 예물을 통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였다(신 18:1). 만약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자명했다. 열왕기하 23장 8-9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다 모든 제사장⁶⁹⁾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⁷⁰⁾ 이 과정에서 소외된 제사장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제사장의 몫을 나눌

66) 이외에도 시 94:6; 146:9; 렘 7:6; 22:3; 겔 22:7; 속 7:10; 말 3:5 등에서도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언급된다.

67) 베테(W. M. L. de Wette)는 1805년에 소위 원신명기와 열왕기하 22-23장의 연관성과 원신명기와 요시아 종교개혁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Pietsch, "Josia,"을 참고하라.

68) 신명기에서 ‘레위(레비/לֵוִי)’는 총 24번, ‘לֵוִי’ 단독으로 17번 그리고 ‘제사장(들)’을 뜻하는 ‘코헨/코헤넵(קוֹהֵן/קוֹהֲנֵי)’과 함께 7번 언급된다. 그중에서 ‘לֵוִי’ 단독으로 언급된 17번 중 10번(신 12:12, 18, 19; 14:27, 29; 16:11, 14; 26:11, 12, 13)은 경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된다.

69) 배희숙, “요시아 개혁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2011), 79-80이 제시한 것처럼, 요시아 종교 개혁에는 두 종류의 제사장, 이방 제의와 관련된 ‘코메르(קוֹמֵר)’(왕하 23:5; 비교 호 10:5; 습 1:4)와 YHWH 종교의 제사장을 뜻하는 ‘코헨(קוֹהֵן)’(왕하 23:8)이 등장한다. 이와 달리 이동규, “구약성서와 종교개혁: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그 현대적 교훈,” 303-304는 קוֹהֵן 역시 요시아 종교 개혁 이전에는 ‘합법적인 YHWH 종교 제사장’, 즉 ‘지방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였다.

70) Wright, “The Levites in Deuteronomy,” 328-329와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16-21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레위인이 율법을 가르치기(신 33:10 비교 11:18)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것을 요구하지만(왕하 23:9)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제사장이 바로 ‘성중에 거한 레위인’이며, 이들은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신 26:12)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레위인의 상황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신명기 본문이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모든 지파 레위 사람’, ‘레위 사람’ 그리고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가 언급되는 18장 1-8절이다.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1-5절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1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뭍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YHWH께 봉헌된 제물이나 다른 지파들의 첫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대대로 YHWH의 이름을 섬기는 의무를 부여받은 ‘제사장’(3.4절)으로 설명된다. 이어지는 6-8절에서도 ‘레위 사람’(6절)은 이스라엘 어느 성읍에 가든지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⁷¹⁾(7절)와 같이 그곳에서 YHWH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8절)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4 종류의 레위인이 언급된 신명기 18장 1-8절 본문은 요시아 종교 개혁 및 사회적 약자 ‘레위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 먼저, 알베르츠(Rainer Albertz)의 의견이다. 그는 본 구절에서 두 종류의 제사장 그룹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⁷²⁾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그룹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으로 1-3절에서 언급되는 ‘레위 사람 제사장’⁷³⁾, ‘모든 레위 지파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모두를 의미한다.⁷⁴⁾ 이들

71) Jeon, “Levites,” 339은 ‘다른 모든 레위 형제’를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동일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일하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동일시했다.

72) Albertz, 『이스라엘 종교사 I』, 469-470.

73) 위의 책, 501, 각주 158는 ‘레위 사람 제사장’에 해당되는 ‘할코넨임 할레비임(לְוִיִּם וְכֹהֲנֵי לְוִיִּם)’을 “문자적으로는 ‘제사장들, 곧 레위인’”으로 번역하였다. 이 외에도 D. Kellermann, Art. “לְוִי (lewī) / כֹּהֵן (f’wījim),” G. J. Botterweck / H. Ringgen, hrsg., *ThWAT IV* (Stuttgart: Kohlhammer, 1984), 513와 Labahn, “Levi / Leviten,”을 참고하라.

74) Wright, “The Levites in Deuteronomy,” 326-327 역시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을 ‘레위

은 요시아 종교 개혁 이후 예루살렘 성전 제의 집행 및 봉헌된 예물에 대한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했다는 것이다(45절). 이와 달리 6절에서 언급되는 ‘레위 사람’은 요시아 종교 개혁 이후 일터를 잃어버린 ‘지역 성소 제사장들’로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된 제물의 몫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다(6-8절).⁷⁵⁾

민경진의 의견은 ‘레위 사람 제사장’(1-5절)과 ‘레위인’(6-8절)을 구분하였으며, 이들 모두 ‘제사장’이라는 큰 틀에서 알베르츠의 의견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두 제사장 그룹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면, 결코 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없지만, 6절 이하에서 언급된 ‘레위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민경진 역시 신명기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을 의미하며,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 제의에서 배제된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⁶⁾ 이와 같이, 알베르츠와 민경진은 신명기 18장 1-6절 본문을 요시아 종교 개혁 이후 상황과 연결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나이만(Nadav Na’aman)은 좀 더 복잡한 편집 과정에 관하여 언급하였다.⁷⁷⁾ 먼저, 1절에서 언급된 ‘레위 사람 제사장’은 요시아 종교

사람 제사장’으로 동일하게 읽을 수 있으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였다.

75) 이와 달리 Harald Samuel, *Von Priestern zum Patriarchen: Levi und die Leviten im Alten Testamen*, BZAW 448 (Berlin: de Gruyter, 2014), 113은 6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은 1절에서 언급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을 포함한 모든 레위인이라고 주장하였다.

76) 민경진, “신명기에서의 레위인,” 『장신논단』 44/4(2012), 20.32-33. 이와 달리 Chistensen, 『신명기 1:1-21:9』, 517.729-730은 6절에서 언급된 ‘레위인’은 지역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으로 3대 순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과 동등하게 제의를 봉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과 헌물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자와 소유지가 없는 자”로 분류했다(518).

개혁에 영향을 준 신명기 원문헌증(비교 신 17:9; 24:8)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 출신 제사장’이며, 6-8절에서 언급된 ‘레위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잠재적 제사장 “potential priests”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1절에서 언급된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신명기 원문헌증에 존재하지 않은 이후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⁷⁸⁾ 결국 나아만은 전체적으로 요시아 종교 개혁 이전의 본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명기 18장 1-8절 본문의 ‘삶의 자리’가 요시아 종교 개혁 전·후인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 본 연구자는 6-8절에서 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사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 내 어느 성읍을 가든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요시아 중앙 성소화 종교 개혁의 내용(왕하 23:9)과 상반된 진술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명기 18장 1-8절의 내용은 요시아 종교 개혁 이전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레위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시아 개혁과 연관된 또 다른 신명기 본문은 12장 본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YHWH께 예배하고 예물을 봉헌할 곳으로 언급된 ‘하남께서 택하신 곳’(5.11.14.18.21.26절)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시아 예루살렘 중앙 성소화 종교 개혁 이후 유일한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전제한다.⁷⁹⁾ 그리고 봉헌된 예물을 여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77) Na‘aman, “Sojourners and Levites in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BCE,” 263-266. 이를 통해서 ‘레위인’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78) Reinhard Achenbach, “Levitishe Priester und Leviten im Deuteronomium: Überlegungen zur sog. „Levitisierung“ des Priestertums,” ZAR 5 (2003), 306는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 시 함께 귀환한 유다 백성 중 포함된 레위인(스 8:15-20)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포로기 이후 편집된 본문으로 이해하였다.

79) 예를 들면, Chistensen, 『신명기 1:1-21:9』, 495-501.

받은 유산이 없는 ‘성안에 거하는 레위인’(12.18.19절)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남종과 여종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내용을 통해서 ‘성안에 거하는 레위인’ 역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대상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며, 반대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대상은 예루살렘 성전 제의에서 배제된 지역 성소 파괴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지역 성소 제사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요시야 종교 개혁 이후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 개념에 ‘레위인’, 즉 “일터를 잃어버린 지역 성소의 제사장”⁸⁰⁾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 ‘레위인’은 모든 레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성소에서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 느헤미야 종교 개혁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구약 본문 속에서 레위인의 역할은 왕국 시대와 비교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된 이후 또 다른 이유에서(겔 44: 10-16) 레위인의 제사장 직무가 박탈된 후,⁸¹⁾ 성전 제의 조력

80) Alberty, 『이스라엘 종교사 I』, 501. 한동구,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12-14 역시 ‘레위인’을 지역 성소에 활동했던 제사장으로 요시야 종교 개혁시 이들은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중앙 제사장들과 동등한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비교 왕하 23:8-9; 신 18:6-8).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의 갈등만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지역 성소 제사장 권리마저 박탈된 ‘사회적 하층민’으로 몰락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포로기 우상 숭배 제사장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하였다(비교 왕하 23:5; 겔 44:10). Na’aman, “Sojourners and Levites in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BCE,” 264은 지역 성소 제사장이 요시야 종교 개혁시 지역 성소 제사장들이 배제된 이유를 첫째, 비례외 자손의 제사장이 지역 성소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비교 왕상 12:31), 둘째, 지역 성소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 제의와 연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및 성전 관리인으로 전락한 레위인은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 그 이유를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총독의 예루살렘 파견(느 2장), 주전 445년 예루살렘 성벽 재건(느 3-6장), 학자 에스라의 율법 낭독(느 8장)과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느 9장) 그리고 유대 공동체의 사회적 개혁(느 12-13장)을 담고 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시기인 주전 5세기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건설된 신앙 공동체는 사회적 위기를 맞이한다. 예를 들면 성벽 재건을 위한 강제 노역과 추가 세금 징수(느 3장), 귀족들과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불평과 과도한 세금 징수(느 5:1-13)과 같은 경제적 이유에 기인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류 계층의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은 유대 공동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위협 요소로 작용했다.⁸²⁾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 유대 공동체의 신앙과 사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부당한 고리대금 철폐(느 5:1-13), 귀환자들의 목록 작성(느 7장, 11장), 율법 낭독을 통한 율법 교육(느 8장), 안식일 준수 촉구(느 13:15-18),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느 13:23-30)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를 정비하였다(느 10:32-39).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적 개혁 속에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는 관심 밖 대상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위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81) 에스겔 44장 10-16절에서 언급된 '레위인 제사장'과 '사독계 제사장' 사이의 역사적 갈등과 이에 대한 신학적 요인에 관한 최근 논의는 Jeon, "The Levites and Idolatry: A Scribal Debate in Ezekiel 44 and Chronicles," 349-356을 참조할 수 있다.

82) 주전 5세기 유대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위기에 관하여는 라이너 Raine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2*, 강성열 역, 『이스라엘 종교사 II』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249-269을 참고하라.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인 없이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정결에 식을 베푸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성가대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사역하는 것과 같은 레위인의 직무를 정확히 규정되었으며(느 12:44-47),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레위인을 위해서 헌납물, 첫 소산 그리고 십일조와 같은 ‘거룩한 몫’을 별도로 남겨놓았다(느 12: 44,47; 13:14). 왜냐하면 레위인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지만 받을 몫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⁸³⁾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속적 장소⁸⁴⁾에서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느 13:10).⁸⁵⁾ 결국 그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레위인을 구제하기 위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걷는 구체적인 행동(느 13:12)을 취하는 것이 느헤미야 개혁의 중요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사회적 약자 ‘레위인’과 사회적 약자 ‘목회자’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도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에 대한 사회적 구제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이스라엘 사회처럼 레위인과 같은 종교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진 다른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비교 창 47:22). 구약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회에

83) 단적인 예를 느헤미야 13장 4-13절에서 찾을 수 있다. 분명 성전을 관리하고 제의를 준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몫을 보관하는 방들이 존재했지만,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에게 그 방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쌓아 놓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깨끗하게 비워 놓았기 때문이다.

84) 실질적으로 레위사람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흩어져 살았음을 알 수 있다(비교 느 7:73; 11:20).

85) 이 외에도 민경진, “느헤미야 13장, 세 질문으로 다시 읽기,” 『구약논단』 68(2018), 50-51은 레위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그 당시 레위인에 대한 제사장들의 적대적 태도에서 찾았다.

서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경제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달리 YHWH로부터 땅과 유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약자’ 레위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단순히 종교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 역시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인의 지위 변화를 경험한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예루살렘 중앙 성소화로 대변되는 요시야 종교개혁과 새롭게 시작된 유대 공동체 내 레위인의 역할과 직무를 재확립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및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논란, 레위인의 신분과 역할을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로 대치한다면, 현재 신학 및 목회 현장에 던지는 큰 울림이 있을 것이다.⁸⁶⁾ 분명한 사실은, 여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유산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YHWH가 직접 기업이 되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위로와 축복이 레위인에게 있는 것처럼(신 10:9; 12:19; 14:27; 수 13:33 등), 경제적으로 넉넉함 또는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YHWH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YHWH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현재 목회자의 믿음 역시 변함이 없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왕국 시대에 모든 ‘레위인’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요시야 종교 개혁과 함께 일터를 잃어버린 ‘지역 성소 레위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한국 교회 목회자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왜냐하면 모든 현재 목회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비전 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로 불리는 교회의 목회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86) 현재 많은 한국 목회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명감 사이의 갈등과 해결책에 관한 최근 연구는 구준호, “목회자의 재정적 자유: 레위인 성읍과 이중직에 대한 변론,” 『신앙과 학문』 29/2(2024), 27-49과 29쪽에서 언급된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구준호는 많은 목회자들이 겪는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속 ‘이중직 사례’를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취한 행동은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제도적 그리고 율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구약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성과 이상적인 대안이 아닌 재원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YHWH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발적 또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었다. 즉, YHWH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또는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은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약자들을 보살피어야 한다는 것이다(신 10:19;16:12; 24:18,22). 결국, 묵묵히 지역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것은 윤리적 사회적 의무가 아닌 구약이 말하는 YHWH에 대한 신앙적 의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전과 성소에서 제의를 담당하는 제사장,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조력자, 때로는 성전 보호를 위한 문지기, 성전 성가대 등 레위인의 역할이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레위인의 직무가 제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것처럼 현재 목회자들의 역할 역시 교회 중심의 예배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사문. 『사무엘상』.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8.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구준호. “목회자의 재정적 자유: 레위인 성읍과 이중직에 대한 변론.” 『신앙과 학문』 29/2 (2024), 27-49.
-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26(2009), 112-128.
- _____. “신명기에서의 레위인.” 『장신논단』 44/4(2012), 13-36.
- _____. “느헤미야 13장, 세 질문으로 다시 읽기.” 『구약논단』 68(2018), 37-61.
- 배희숙. “요시야 개혁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 (2011), 75-96.
- _____. “역대기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능 및 그 의미.” 『장신논단』 45/4(2013), 67-89.
-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의 레위인은 누구였는가?” 『구약논단』 89(2023), 109-144.
- 이공재. “구약 속 ‘이방인(*gér*)’과 ‘외국인(*nákrí*)’에 대한 신학적 평가: 다문화·다인종 사회와 2세대 청소년에 전하는 한국 교회의 메시지.” 『신학과 현장』 33 (2023), 219-244.
- 이동규. “구약성서와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그 현대적 교훈.” 『구약논단』 66(2017), 286-323.
-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신학사상』 160(1999), 9-42.
- 이한석. “구약 성서의 타자(他者)인 이방인과 고아, 과부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적 고찰: 신명 24,17-22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60(2024), 485-521.
- 정중호. “야훼 종교 제사장 레위인의 정체와 역할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18(1999), 195-207.
- 한동규.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_____.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구약논단』 21(2006), 10-32.
- 최무열. “신명기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선교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36(2015), 237-277.
- Achenbach, Reinhard. “Levitische Priester und Leviten im Deuteronomium: Überlegungen zur sog. „Levitisierung“ des Priestertums.” *ZAR* 5 (2003), 285-309.

- Alberty, Rainer. “Die Theologisierung des Rechts im Alten Israel.” in Rainer Alberty (Hrsg.), *Geschichte und Theologie: Studien zur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und zu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BZAW 326, Berlin: de Gruyter, 2003, 187-207.
- _____.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1*, 강성열 역. 『이스라엘 종교사 I』.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_____.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2*, 강성열 역. 『이스라엘 종교사 II』.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Allen, Leslie C. *Ezekiel 20-48*. WBC 29. 정일오 역. 『에스겔 20-48』. 서울: 솔로몬, 2008.
- Altmann, Peter. “What Do the ‘Levites in Your Gates’ Have to Do with the ‘Levitical Priests’? An Attempt at European-North American Dialogue on the Levites in the Deuteronomic Law Corpus.” in Mark A. Leuchter and Jeremy M. Hutton (eds.), *Levites and Priest in Biblical History and Tradition*, SBL 9. Atlanta: SBL, 2011, 135-154.
- Berger, Klaus. *Das Buch der Jubiläen*. JSRZ 2.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81.
- Braulik, Georg. “Die dekalogische Redaktion der deuteronomischen Gesetze. Ihre Abhängigkeit von Levitikus 19 am Beispiel von Deuteronomium 22,1-12; 24,10-22 und 25,13-16,” in ders., *Bundesdokument und Gesetz. Studien zum Deuteronomium*. HBS 4. Freiburg: Herder, 1995, 1-26.
- Chistensen, Duane L. *Deuteronomy 1:1-21:9*. WBC 6A, 정일오 역. 『신명기 1:1-21:9』. 서울: 솔로몬, 2003.
- Cody, Aelred. *A History of Old Testament Priesthood*. AnBib 35.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9.
- Cross, Frank Moore.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Eckhardt, Benedikt. *Ethnos und Herrschaft. Politische Figurationen jüdischer Identität von Antiochos III. bis Herodes I*, SJ 72. Berlin: de Gruyter, 2013.
- Emerton, John Adney. “Priests and Levites in Deuteronomy: An Examination of Dr. G. E. Wright’s Theory.” *VT* 12 (1962), 129-138.

- Fensham, Frank Charles. "Widow, Orphan, and the Poor in Ancient near Eastern Legal and Wisdom Literature." *JNES* 21 (1962), 129-139.
- Gunneweg, Antonius H. J. *Leviten und Priester. Hauptlinien der Traditionsbildung und Geschichte des israelitisch-jüdischen Kultpersonals.* FRLANT 8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 Hertzberg, Hans Wilhelm. *Die Samuelbücher übersetzt und erklärt.* ATD 1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⁵.
- Jeon, Jaeyoung. "Levites,"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Its Reception (EBR).* Vol 16, Berlin: de Gruyter, 2018, 336-346.
- _____. "The Levites and Idolatry: A Scribal Debate in Ezekiel 44 and Chronicles." in Jaeyoung Jeon and Louis C. Jonker (eds.), *Chronicles and the Priestly Literature of the Hebrew Bible.* BZAW 528. Berlin: de Gruyter, 2021, 348-374.
- Jericke, Detlef. "Silo (Ort)." (erstellt: September 2019)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
- Kellermann, D. Art. "לֵוִי (lewī) / לֵוִיִּם (l^ewījim)," G. J. Botterweck / H. Ringgen, hrsg., *ThWAT IV.* Stuttgart: Kohlhammer, 1984, 499-521.
- Klein, Ralph W. *1 Samuel*, WBC 10, 김경열 역, 『사무엘상』. 서울: 솔로몬, 2004.
- Krapf, Thomas. "Traditionsgeschichtliches zum Deuteronomischen Fremdling -Waise-Witwe-Gebot." *VT* 34 (1984), 87-91.
- Kugler, Robert. Art. "Priests and Levites." *NIDB* 4,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596-613.
- Labahn, Antje. "Levi / Leviten." (erstellt: August 2014)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
- Leuchter, Mark. *The Levites and the Boundaries of Israelite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MacDonald, Nathan. *Priestly Rule. Polemic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Ezekiel 44.* BZAW 476. Berlin: de Gruyter, 2015.
- McCarter, P. Kyle. *1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 Commentary.* Garden City: Doubleday, 1980.
- Möhlenbrink, Kurt. "Die levitischen Überlieferungen des Alten Testaments." *ZAW* 52 (1934), 184-231.

- Molnar-Hidvegi, Nora. "Witwe und Waise (AT)." (erstellt: April 2010)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
- Na'aman, Nadav. "Sojourners and Levites in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BCE." *ZAR* 14 (2008), 237-279.
- Neef, Heinz-Dieter. Art. "Levi." Otto Betz, Beate Ego und Werner Grimm (hrsg.), *Calwer Bibellexikon*. Bd. 2. Stuttgart: Calwer Verlag, 2003, 826.
- Oswald, Wolfgang. "Bundesbuch." (erstellt: Dezember 2005)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
- Pietsch, Michael. "Josia." (erstellt: Juni 2017)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
- Rehm, Merlin D. Art. "Levites and Priests." *ABD* IV. New York: Doubleday, 1992, 297-310.
- Rowley, Harold Henry. "Zadok and Nehushtan." *JBL* 58 (1939), 113-141.
- Samuel, Harald. *Von Priestern zum Patriarchen: Levi und die Leviten im Alten Testamen*. BZAW 448. Berlin: de Gruyter, 2014.
- Spencer, John R. Art. "Levi(person)." *ABD* IV. New York: Doubleday, 1992, 294.
- Stoebe, Hans Joachim. *Das erste Buch Samuelis*. KAT VIII/1. Gütersloh: Gerd Mohn, 1973.
- _____. *Das zweite Buch Samuelis*. KAT VIII/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 VanderKam, James C. "Jubilees Exegetical Creation of Levi the Priest." in ders., *From Revelation to Canon: Studies in the Hebrew Bible and Second Temple Literature*. Leiden: Brill, 2000, 545-561.
- Vejola, Timo.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Kapitel 1,1-16,17*, ATD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 Wright, George Ernest. "The Levites in Deuteronomy," *VT* 4 (1954), 325-330.
- Wellhausen, Julius.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Georg Reimer, 1899⁵.

44 『기독교사회윤리』 제61집

논문투고일: 2025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5년 03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12일

• 국 문 소 록 •

구약에서 레위인은 나그네, 고아, 과부와 함께 사회적 약자로 언급되며, 이들 레위인을 위한 사회적 및 율법적 보호 장치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신명기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주전 622년) 이후 제사장직에서 배제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후 느헤미야 개혁(주전 5세기)에서도 십일조와 헌물을 통해 ‘레위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오늘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과 유사하며, 이들은 돕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신앙적 의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회적 약자, 레위인, 신명기, 요시아 종교 개혁, 느헤미야 종교 개혁
